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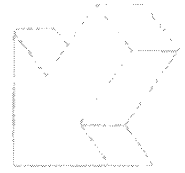
2010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워크숍

2010. 7. 16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 목 차



Contents

2010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워크샵

1. 2010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워크샵 계획 1
2.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장 인사말씀 3
3. <특강 1> 대한민국과 베이비붐 세대 5
(송양민 - 가천의대 교수)
4. <특강 2> 웃음과 행복 59
(이재선 - 명지대 교수)



2010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워크숍 계획

I. 개요

■ 목 적

-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우리실 직원의 관심과 노력으로 대국민적 인식 전환의 계기를 도모
- 금년도 실 출범이후 전 직원 간 상호이해 및 정체성 정립을 도모할 수 있는 장 마련
 - * 우리실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토론 병행

■ 일시 및 장소 : 7. 16(금), 14:00~18:00, 보사연 대회의실

■ 참석대상 :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전직원 약 120여명

* 업무에 필요한 필수 인원은(1~2명) 제외

■ 주요내용(안)

- 실장님 인사 및 격려의 말씀
- 특 강 I
 - 교수 송양민(가천의대) : (베이비붐 세대) “밥, 돈, 자유” 저자
 - * 교재는 구매하여 참석자 전원에게 배포예정
- 특 강 II
 - 교수 이재선(명지대) : “웃음과 행복” 강의

- 우리실 발전방안에 대한 자유발언(토론)
 - * 국장님 직원들 발전방안 등에 대한 마무리 말씀(정리)
- 금일 Workshop의 의의 및 정리 : 실 주무국장(인구아동정책관)
- 전체 마무리 말씀(실장님)

II. 시간대별 일정

소요시간		행사내용	비고
13:30~14:00	30분	등록	전체
14:05~14:10	5분	인사말씀(격려사)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실장
14:10~15:10	60분	〈특강 1〉 베이비 부머세대 관련 “밥, 돈, 자유” 송양민(가천의대 교수)	질의응답 포함
15:10~15:25	15분	Coffee Break	
15:25~16:25	60분	〈특강 2〉 웃음과 행복 (이재선-명지대 교수)	전체
16:25~16:40	15분	Coffee Break	
16:40~17:40	60분	우리실 발전방안에 대한 자유 발언	각 국별 2~3명씩 발언 이후 국장님 발언 *별도 사회자 진행(예정)
17:40~17:45	5분	실 주무국장 워크샵 정리	인구아동정책관
17:45~17:50	5분	마무리 말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실장
18:00~20:00	2시간	저녁만찬	전체 (보사연 식당 출장 뷔페)

* 자유발언 시간에는 직위나 직급에 상관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가능



실장님 인사말씀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무더운 여름 날씨에 우리실 전 직원이 함께 모이기가 쉽지 않는데 이 자리에서 함께 뵈니 정말 기쁘고 반갑습니다.

우리실이 지난 3월 19일 발족된 이후 벌써 몇 개월이 지났으나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 본적은 오늘이 처음이 아닐까 합니다.

그 동안 다들 바쁘시고 업무에 쫓기고 하다 보니, 우리가 함께하는 중요한 시간을 만들지 못 했던 것 같았습니다.

오늘 우리실 워크샵의 목적은 다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동안 우리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우리나라 최대의 현안 과제중 하나인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할 일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여 보고 더 나아가 국민적 관심과 인식전환의 계기를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또 하나를 들자면 우리실 출범 이후 전직원이 함께하여 상호간 이해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며, 직원들의 활력과 충전을 위함도 있을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이중 어느 쪽을 생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사실,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중에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담당하고 계신 아동, 노인, 보육분야 주요 내용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핵심내용으로 스며들어 있습니다.

다들 어렵고 힘든 업무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만은 한자리에
모여 웃으면서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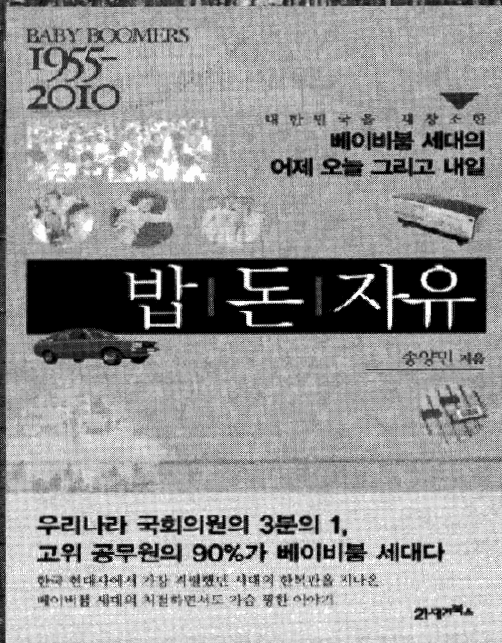
오늘 일정을 보니 특강도 2개나 준비 된 것 같고 자유발언시간도
있던데 짧은 시간이지만 잘 배합된 것 같구요.

업무도 생각하고(베이비 부머 관련 특강), 웃으면서(웃음과 행복),
의사소통(자유발언 시간)도 하자는 의미 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힘겹게 개최한 우리실 워크샵인 만큼, 모두 보람 있고
유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과 베이비붐 세대



가천의대 보건복지대학원장
송양민

말씀 드릴 순서

1. 베이비붐 세대의 어제
2. 베이비붐 세대의 오늘
3. 베이비붐 세대의 앞날
4. 베이비붐 세대가 풀어야 할 과제

베이비붐세대 은퇴에 관한 언론보도

311만명 '준비 안된 은퇴' 시작

"집 한 채에 국민연금뿐" 1955~1963년생 격상인용 문제 현실로

베이비붐 세대 2010년 소년

베이비붐세대 400만 명에 달하는 1955~1963년생이 2010년 1월 1일 기준 311만 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붐세대는 1955~1963년생을 가리키며, 이 시기에 태어난 인구가 급증했다. 그러나 2010년 기준 베이비붐세대 인구는 311만 명으로, 1990년대 초반에는 400만 명에 달했다. 이는 베이비붐세대 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베이비붐세대 2010년 소년... 베이비붐세대 400만 명에 달하는 1955~1963년생이 2010년 1월 1일 기준 311만 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붐세대는 1955~1963년생을 가리키며, 이 시기에 태어난 인구가 급증했다. 그러나 2010년 기준 베이비붐세대 인구는 311만 명으로, 1990년대 초반에는 400만 명에 달했다. 이는 베이비붐세대 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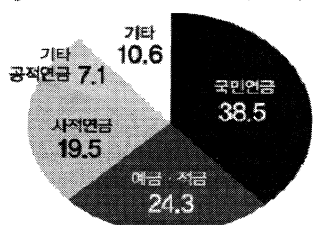


800만 베이비붐세대 탐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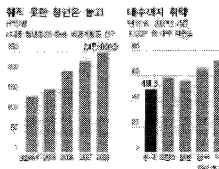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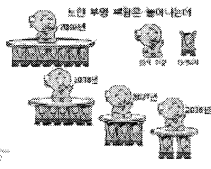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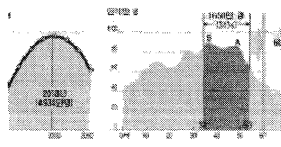
맛본 낚시대... 초라한 사오정

구분	세대	인구	특징
1차	1955~1963년생	311만 명	국민연금 의존도가 높음
2차	1968~1974년생	245만 명	국민연금 의존도가 낮음
3차	1979~1985년생	210만 명	국민연금 의존도가 낮음
4차	1990~1996년생	175만 명	국민연금 의존도가 낮음
5차	1997~2003년생	140만 명	국민연금 의존도가 낮음

노후준비 방법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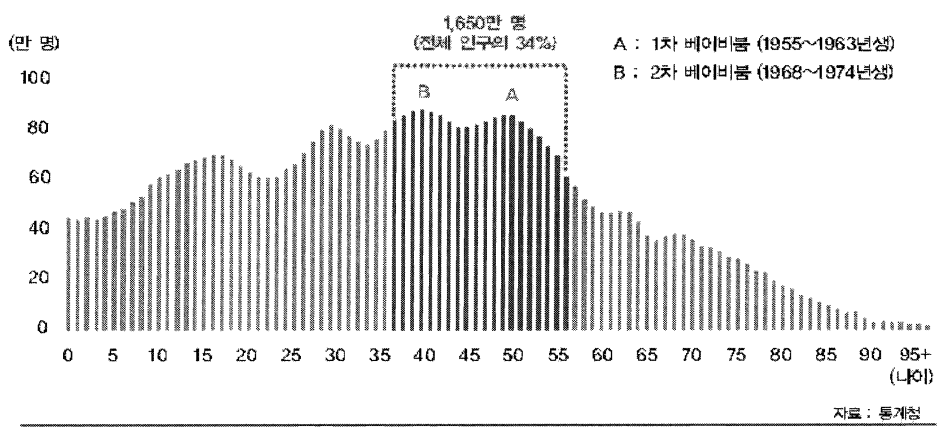
주요 주택시장 동향



베이비붐 세대 은퇴... 주택 수요 내리막

1.2차 베이비부머 총 1650만 명

우리나라 인구 구조와 1, 2차 베이비붐 세대 (2010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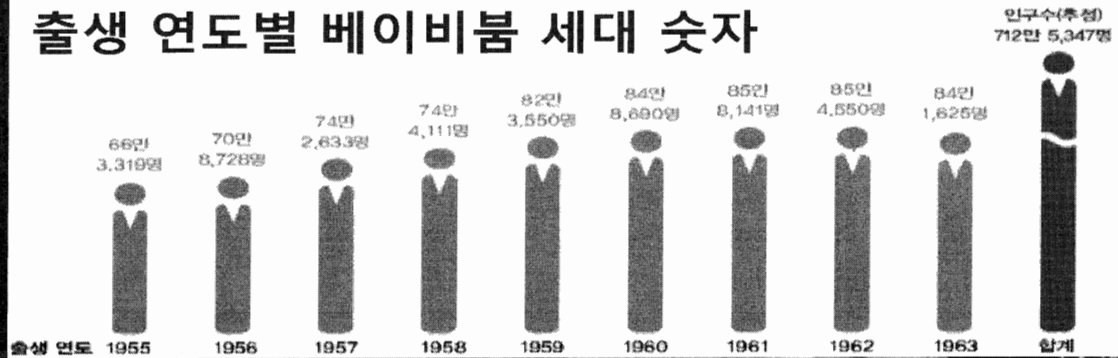
한·미·일의 베이비붐 세대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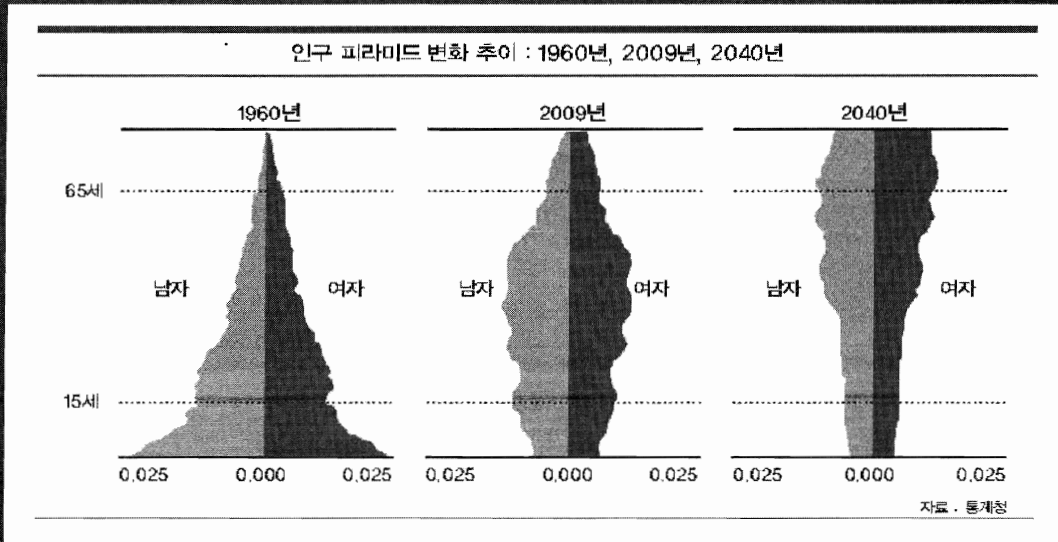
한국	일본	미국
1955~1963년생	1947~1949년생	1946~1964년생
712만 명, 전체 인구의 14.6%	680만 명, 전체 인구의 5%	7,700만 명, 전체 인구의 30%
1인당 평균자산 2억 5,316만 원	1인당 금융자산 1,868만 엔	1인당 평균자산 86만 달러

자료 : 미래에셋투자교육연구소, 현대경제연구원

출생 연도별 베이비붐 세대 숫자



베이비부머의 성장과 인구구조 변화



1. 베이비붐 세대의 어제 사진모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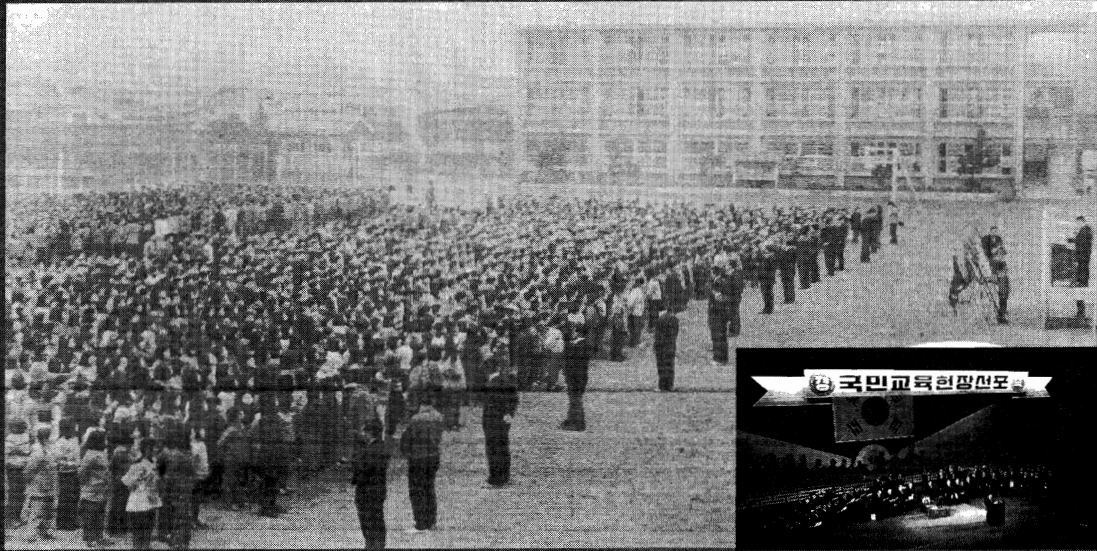
1960년대 판자촌



베이비붐 세대의 어린 시절



1970년대 초등학교 아침조회



1970년대 콩나물 시루 교실



중학교 평준화와 교련교육



식량난과 혼·분식 장려운동



'국민연료' 연탄 생산공장



4.19 혁명과 5.16 군사쿠데타



베트남파병 맹호부대 장병



농촌 새마을운동



강남 개발의 상징 반포아파트



전태일 분신과 YH 여성노동자 사건



10월 유신과 대학에 진주하는 계엄군



박정희 대통령의 긴급조치 4호 선포

『테모學校』廢校가능

大統領緊急조치 4號 선포

違反者는 최고死刑

民主青年學生聯同調동임단
地方長官 兵力요청 할수도
○口까지 自衛隊 不備

○口까지 自衛隊 不備

○口까지 自衛隊 不備

不純요인塞源 安保다지려

朴文體 韓契對 共産分子 地下조직 權證 포착

○口까지 自衛隊 不備

朝鮮通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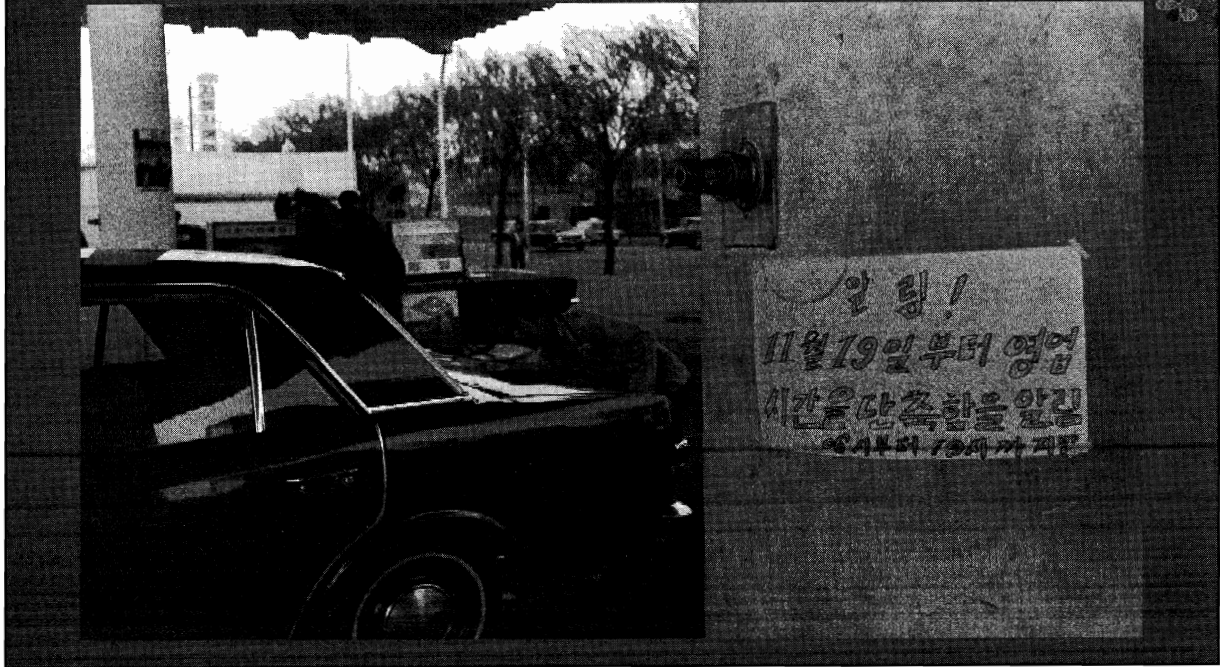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가족계획 캠페인



유신정권의 민청학련 사건 재판



1973년 1차 오일쇼크



중동 건설근로자·파독 광부와 간호사



봉제공장에서 일하는 소녀 노동자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 변화 추이

〈여 성〉

	1975년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전체	40.2	42.8	41.9	47.0	48.4	48.8
15~19세	36.9	34.4	21.1	18.7	14.5	12.6
20~24세	44.0	53.5	55.1	64.6	66.1	61.2
25~29세	29.2	32.0	35.9	42.6	47.9	55.9
30~34세	36.4	40.8	43.6	49.5	47.6	48.8
35~39세	48.9	53.1	52.9	57.9	59.2	59.3
40~44세	53.6	56.7	58.2	60.7	65.7	63.8
45~49세	53.5	57.3	59.2	63.9	60.6	64.9
50~54세	54.5	53.9	52.4	60.0	58.8	55.3
55~59세	47.1	46.2	47.2	54.4	54.1	51.3
60세이상	18.5	16.9	19.2	26.4	28.7	30.2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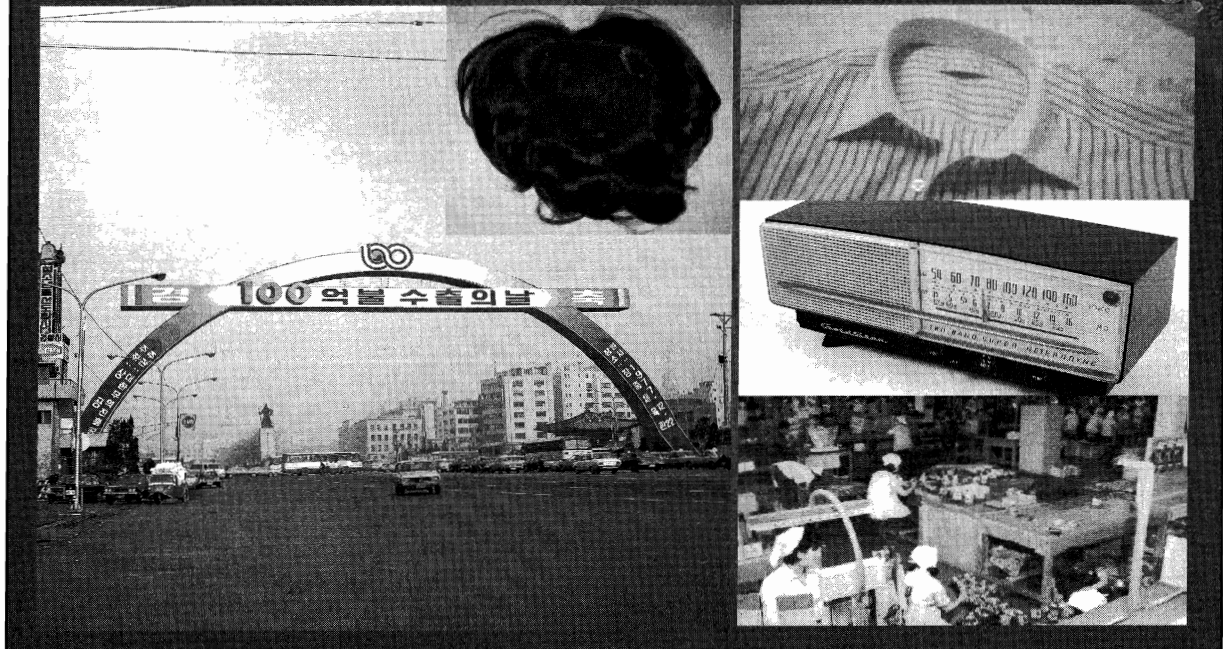
(단위: %)

	1975년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전체	73.8	76.4	72.3	74.0	76.4	74.4
15~19세	36.8	27.3	14.5	10.8	9.5	11.6
20~24세	47.2	76.5	63.3	60.2	58.8	52.9
25~29세	89.5	95.0	90.8	91.9	89.5	84.4
30~34세	98.3	97.6	96.4	97.2	97.0	96.5
35~39세	98.6	97.3	96.8	97.0	97.0	96.8
40~44세	101.2	96.1	94.9	95.7	96.6	94.5
45~49세	100.9	94.4	93.3	94.2	96.2	92.8
50~54세	97.3	90.5	88.1	90.6	91.3	89.4
55~59세	96.2	80.0	77.3	83.6	83.9	77.9
60세이상	49.2	45.2	44.2	49.9	54.1	4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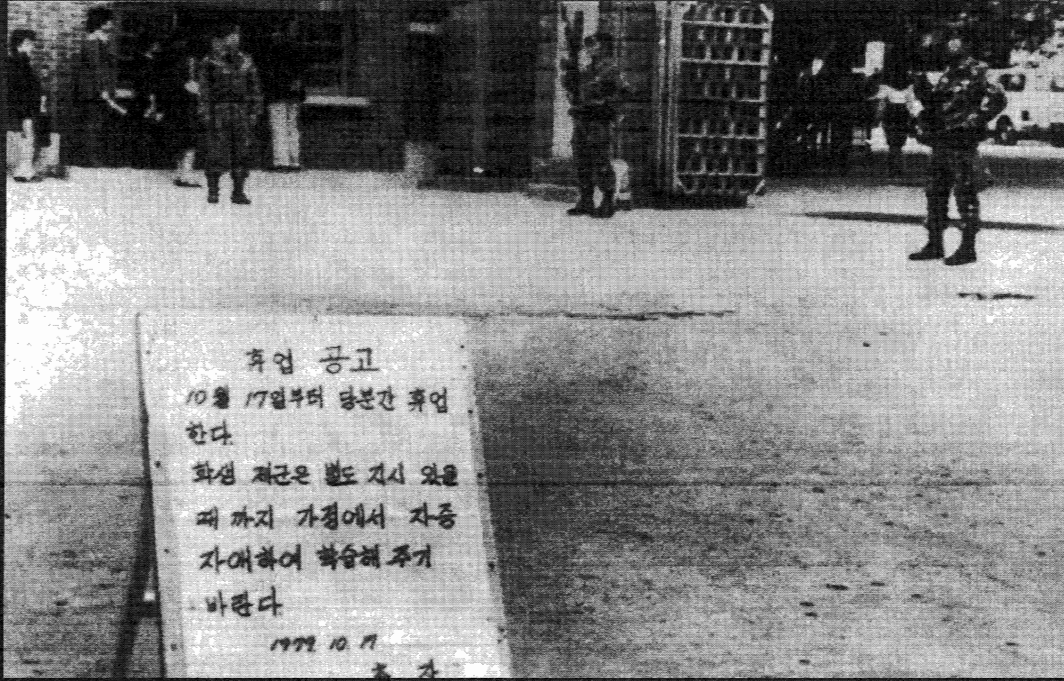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단위: %

※ 집계 표시된 숫자는 1975~2000년 사이 베이비부머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의미한다. 1978년 당시 베이비부머 나이 12~20세와 1980년(17~25세)의 수제복의 수요를 보면 산업 현장에서 당시 얼마나 많은 소년, 소녀 베이비부머들이 일을 하고 있었는가를 알 수 있다. 그 이후로 고졸학력의 대학 진학률이 높아지면서 소년, 소녀 근로자 수는 급속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77년 수출100억 달러 달성



부마사태와 대학휴교령



김재규 사건과 12·12 군사 쿠데타



1980년 서울의 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신 군부의 삼청교육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6·10 민주 항쟁과 넥타이부대



1987년 노동자 대투쟁



1989년 해외여행 자유화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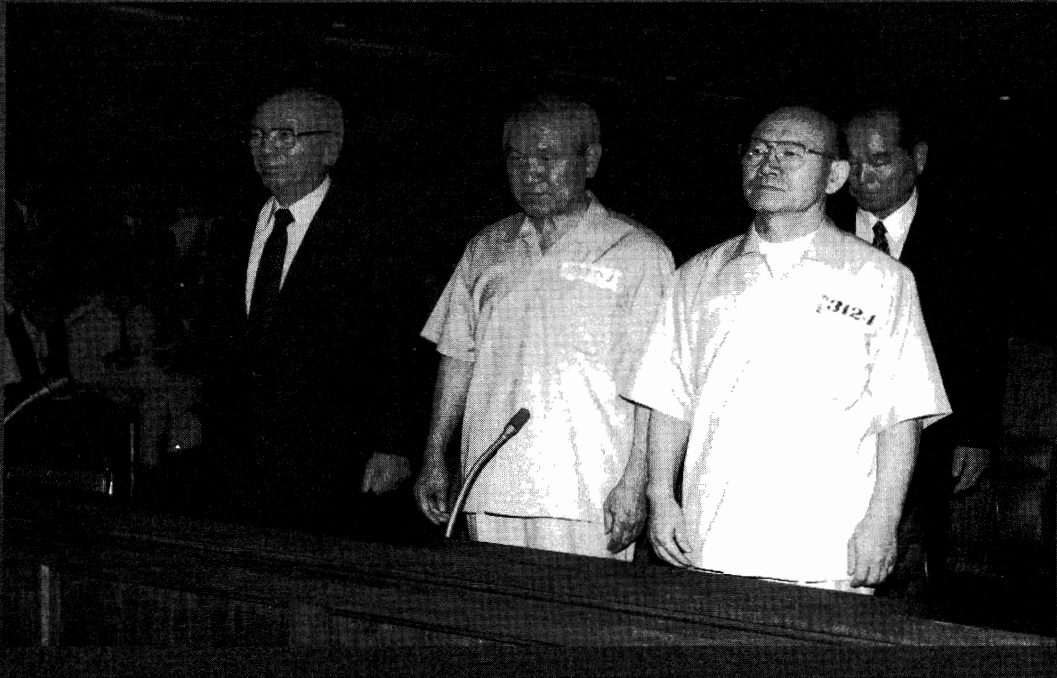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1990년 수도권 신도시 개발



재판정에 선 전두환·노태우 대통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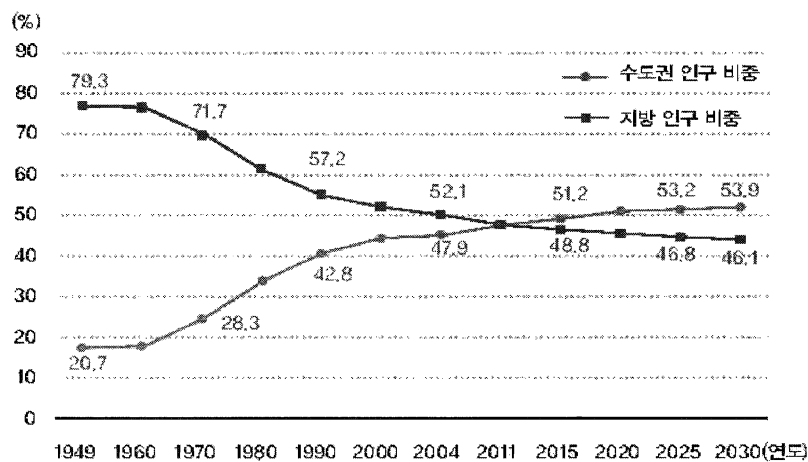


IMF 구제금융 신청과 경제불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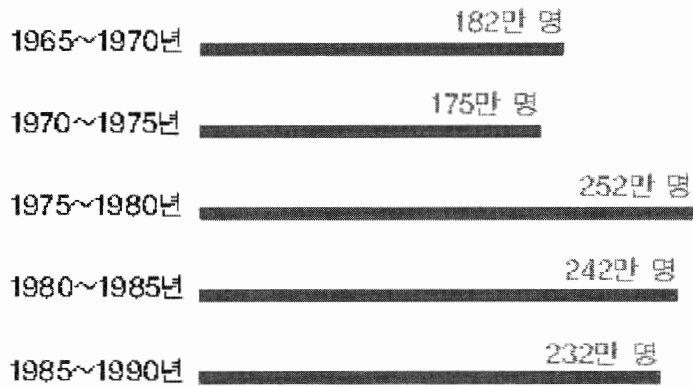
농촌에서 대도시로 집단 이동

가파르게 증가한 수도권 인구



자료 :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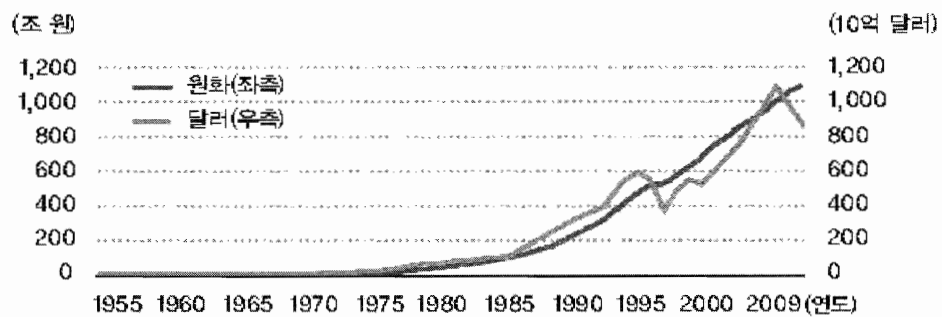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사람들의 행렬



자료 :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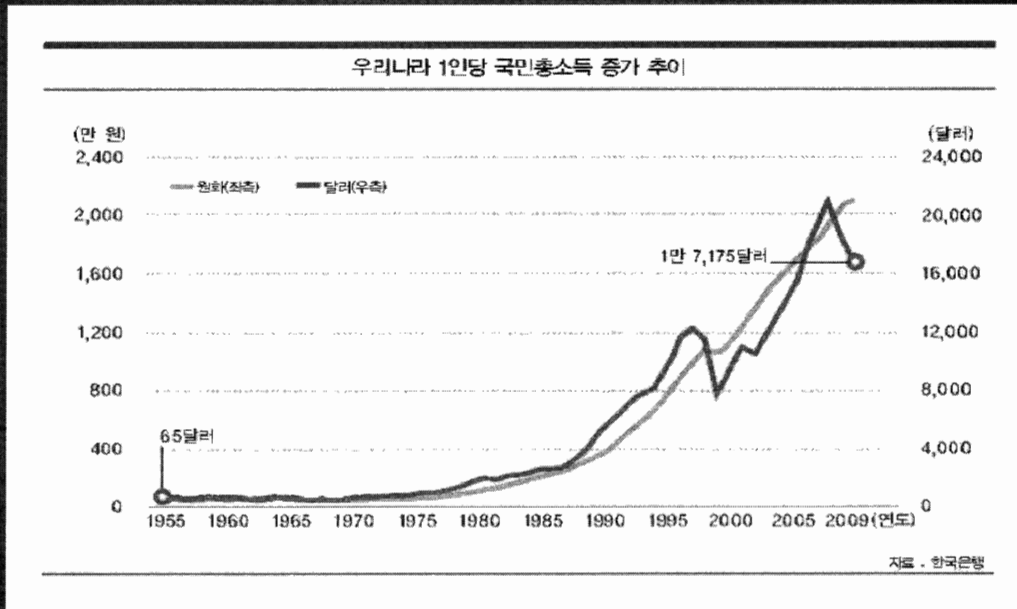
600배 증가한 대한민국 경제규모

우리나라 경제 규모(GDP) 증가 추이(1953~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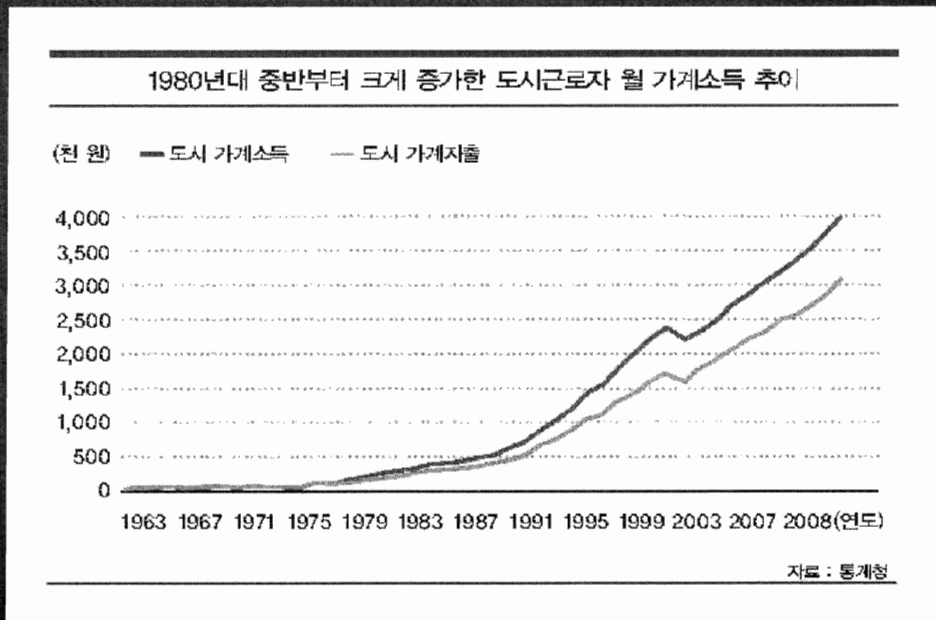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국민소득 65달러에서 2만달러로



중산층의 뿌리, 베이비붐 세대



2. 베이비붐 세대의 오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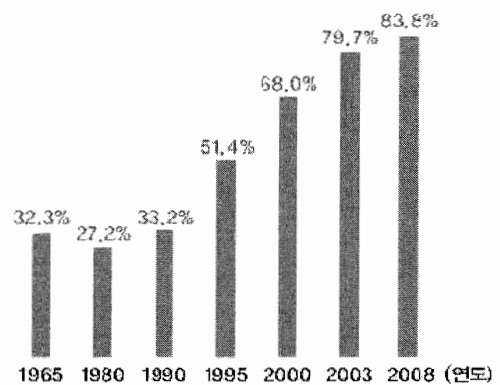


베이비부머 3500명 추적조사

조사대상 베이비부머 3,500명 구성

경북고	58년 개띠	645명(1977년 졸업)
경북고	56년 원송이띠	644명(1975년 졸업)
광주일고	58년 개띠	635명(1977년 졸업)
대전고	59년 돼지띠	622명(1978년 졸업)
경기고	56년 원송이띠	601명(1975년 졸업)
경남고	55년 양띠	406명(1974년 졸업)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 상승 추이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베이비부머 3500명 추적조사

오래 살아남아 있는 직업 순위(6개 명문고 조사, 2008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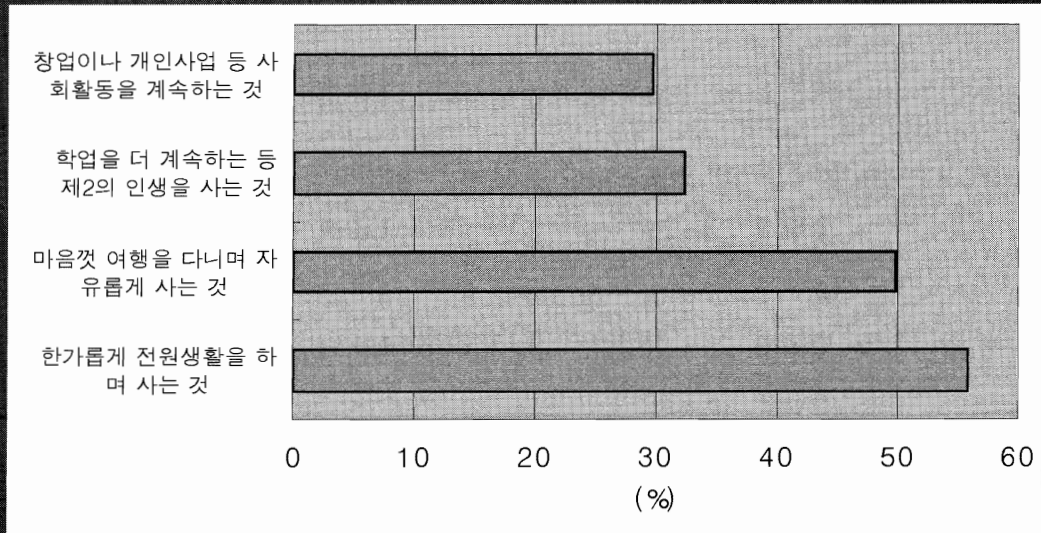
순위	경기고 (1975년 졸업자)	경남고 (1974년 졸업자)	경북고 (1975년 졸업자)	경북고 (1977년 졸업자)	광주일고 (1977년 졸업자)	대전고 (1978년 졸업자)
1위	교수 (143명)	사업·자영업 (119명)	사업·자영업 (98명)	의사 (91명)	의사 (100명)	사업·자영업 (105명)
2위	사업·자영업 (73명)	교수 (50명)	의사 (79명)	교수 (84명)	사업·자영업 (76명)	의사 (63명)
3위	의사 (66명)	의사 (49명)	교수 (78명)	공무원 (53명)	교수 (74명)	교사 (60명)
4위	변호사·관검사 (36명)	공무원 (15명)	공무원 (16명)	사업·자영업 (71명)	공무원 (45명)	교수 (53명)
5위	공무원 (25명)	교사 (12명)	변호사·관검사 (14명)	변호사·관검사 (39명)	교사 (32명)	공무원 (33명)

※ 교동이 불안정한 회사원은 순위집계에서 제외했음.

“꿈과 현실 사이”

은퇴자들의 노후생활 추적

한국인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노후생활'



출처: 취업포털 커리어, 직장인 1041명 조사

그러나 현실은 '고단한 은퇴생활'

- 한국 사회와 선진국 사회 비교
 - 사회보장제도의 미비: 심각한 노인 빈곤 (빈곤률 35%)
 - 조기 은퇴의 확산: 직장인 실질 은퇴연령 53.6세
 - 축적한 재산이 없는 한국 은퇴자
 - * 한국, 60세 이상자가 개인금융자산의 20% 보유
 - * 일본, 60세 이상자가 개인금융자산의 70% 보유
- 한국 은퇴 문화의 특징
 - 자녀에 올인(all in)한 젊은 시절 → "희망 없는 은퇴 생활"
 - 무리한 노후 생활: 노인복지시설, 휴식공간의 태부족
 - 사회적 관계의 축소 → 은퇴생활의 낮은 만족도
 - 여자의 활로(活路), 남자의 말로(末路)

준비 없이 은퇴한 직장인들의 노후생활

- 무료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아내만 따라다니는 '젓은 낙엽족'이 많다
- 재취업이 드물다 : "노인을 위한 일자리는 없다"
- 자녀 교육비 결혼비용 부담으로 고생한다
자녀 사업자금 보증서다 집 날린 사람이 늘어난다
- 준비 없이 창업을 하다 망하는 사람들이 많다
은퇴자 창업 성공률 5~10%
- 확실한 노후 소득원이 없다
개인연금, 기업연금 가입률 8~10%에 불과

55

51세 베이비부머 신상 명세서

베이비붐 세대의 평균치

51세 남성			51세 여성	
28.0년	기대여명		33.9년	
2.3명	평균 자녀수		2.3명	
445만 원	월 평균소득		316만 원	
240만 원	대출		139만 원	
36.8%	고혈압 유병률		30.9%	
16.6%	당뇨병 유병률		9.8%	
41.7%	비만 유병률		43.1%	
50.4%	독서비율		47.0%	
61.6%	인터넷 이용률		36.2%	

가구당 재산보유액 3억 원

가구주 연령 그룹별 자산보유 현황(200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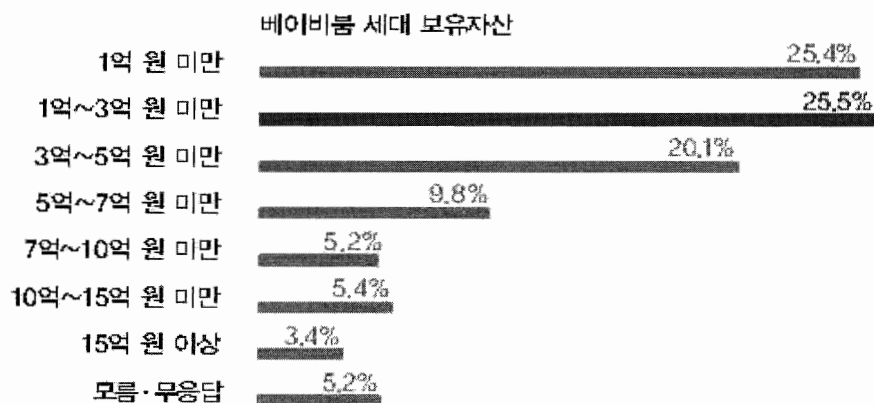
항목	29세 이하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총자산	5,418.2	18,001.0	30,260.2	37,243.4	32,075.8
지속총액	2,903.8	5,611.3	6,744.3	6,548.4	4,557.4
저축액	1,350.5	3,647.1	5,313.7	5,875.3	4,081.2
전·월세 보증금	1,553.3	1,964.2	1,430.6	673.1	476.1
부동산	2,137.7	11,598.0	22,597.1	29,723.2	27,072.3
주택	1,673.5	9,602.5	14,345.4	16,470.9	13,934.5
주택 이외	464.2	2,995.6	8,251.7	13,252.3	13,137.9
기타 자산	376.8	791.6	918.9	971.8	446.1
부채총액	986.5	3,722.7	4,943.4	4,620.0	2,997.2
부채액	901.0	3,000.2	3,763.2	3,257.1	1,781.3
임대보증금	86.5	722.4	1,181.1	1,362.9	1,215.9
순자산	4,431.7	14,278.3	25,316.9	32,623.4	29,078.6

자료 : 통계청, 단위 : 만 원

* 베이비붐 세대는 40~49세 연령대에 속해 있음.

베이비붐 세대의 준비 안 된 은퇴

베이비부머의 취약한 노후준비 상태(2009년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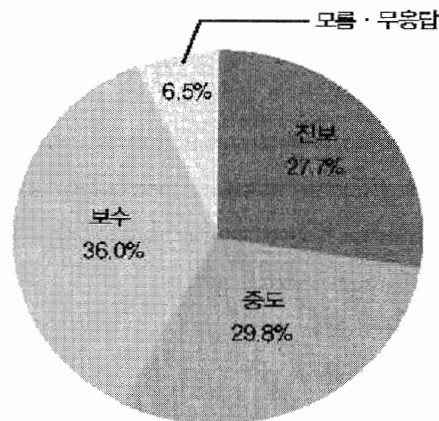
주요 국가의 은퇴 연령

이탈리아	64.4세
스페인	63.2세
영국	63.1세
독일	62.1세
프랑스	61.4세
덴마크	60세
한국	53세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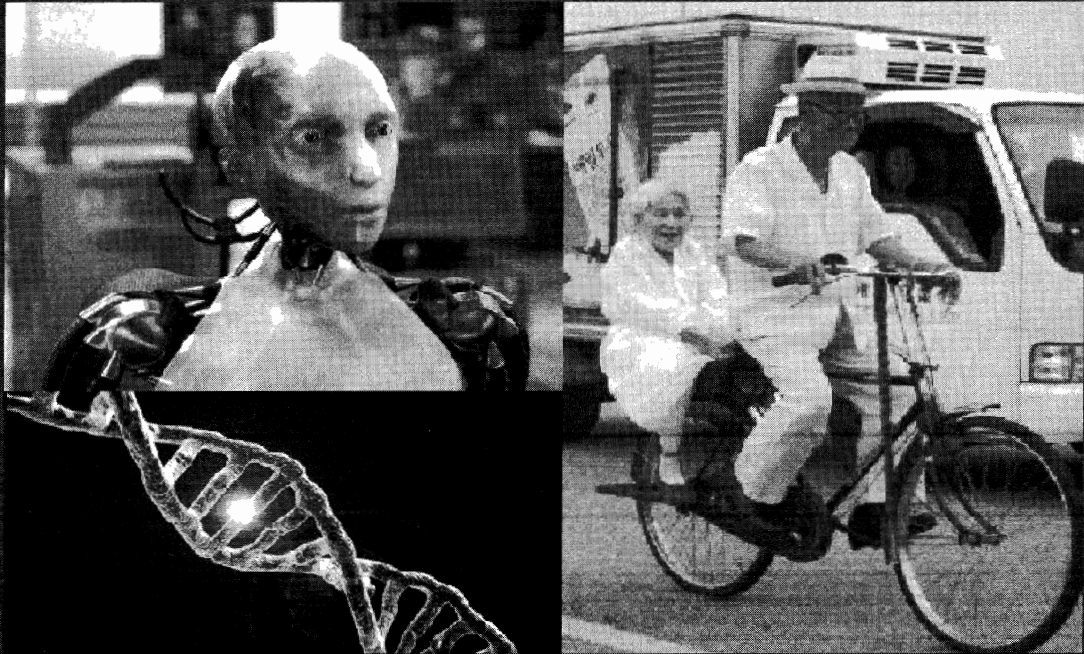
베이비붐 세대의 정치 성향

베이비붐 세대의 정치적 성향(2009년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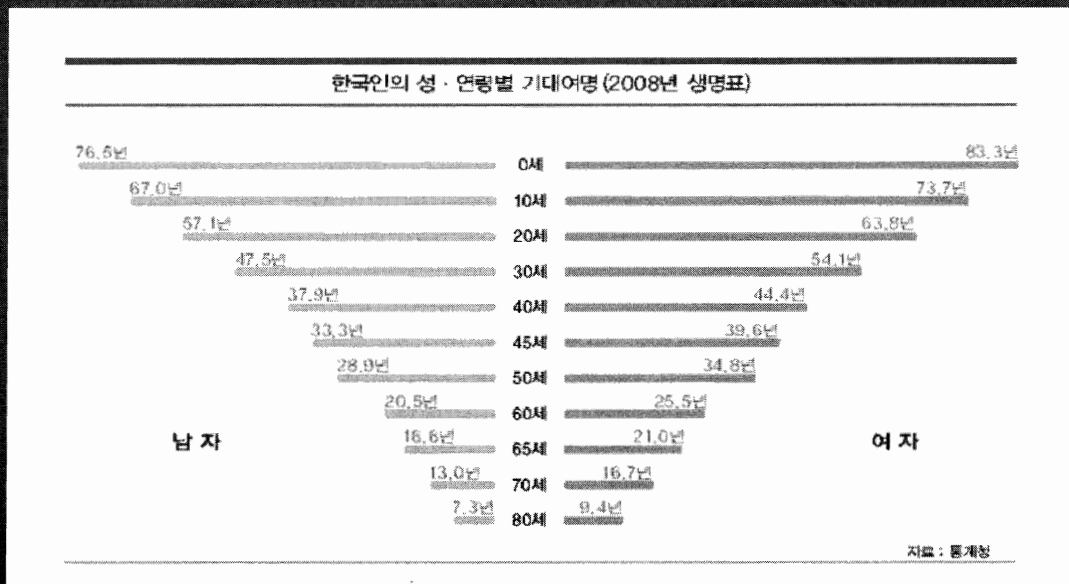


자료 : 매일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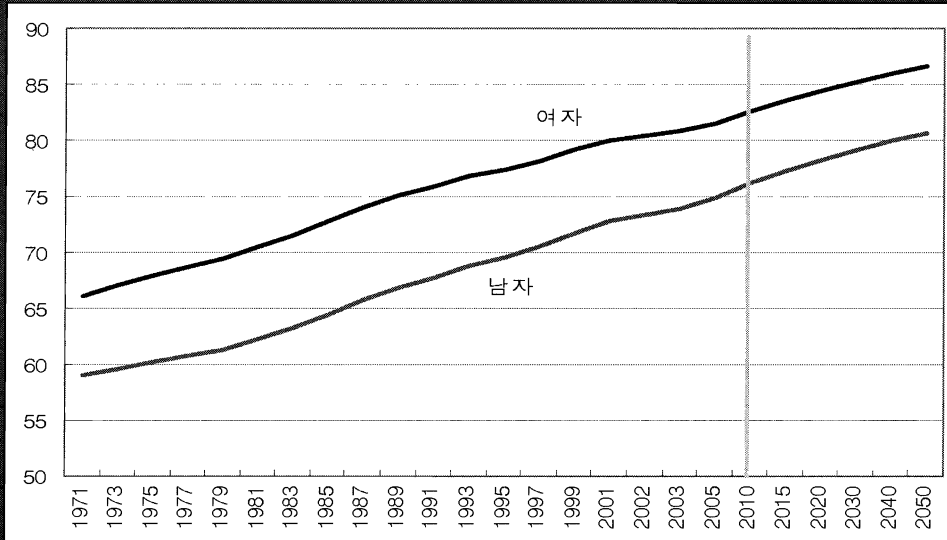
3. 베이비붐 세대의 앞날



건강한 고령화와 인간수명 100세 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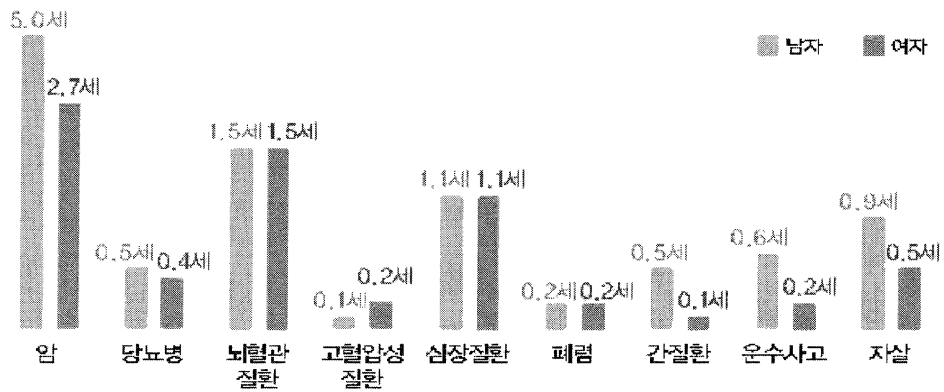


평균수명, 매년 3개월씩 증가



자료 : 통계청

특정 사인 제거 시 증가되는 성별 기대여명(2008년 기준)



자료 : 통계청

의학기술의 발전과 수명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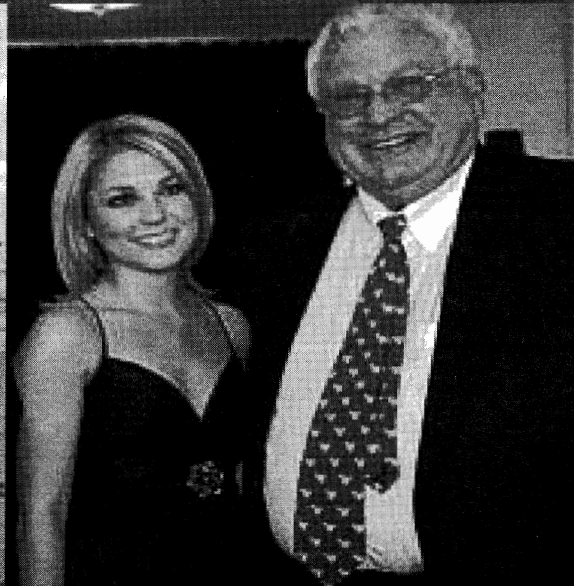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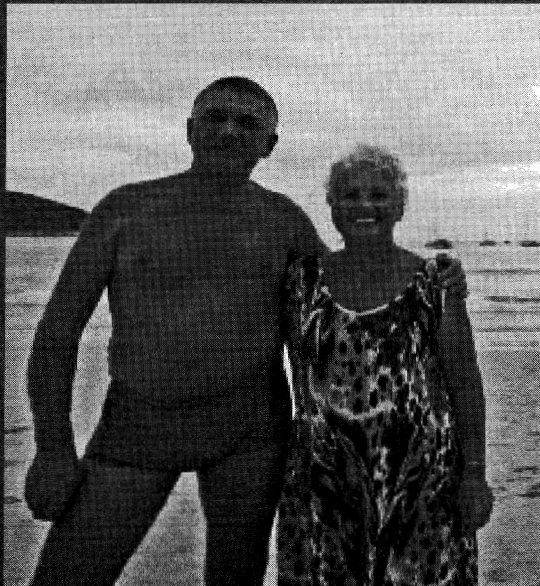
암 수술 5년 생존율

암	한국	미국	캐나다	일본
위	61.2%	25.7%	22.0%	62.1%
간	21.7%	13.1%	14.0%	23.1%
자궁경부	80.5%	70.6%	75.0%	71.5%
대장	68.7%	65.2%	60.0%	65.2%
유방	89.5%	89.1%	87.0%	85.5%
폐	16.7%	15.6%	15.0%	25.6%
전립선	82.4%	99.7%	94.0%	75.5%
모든 암	57.1%	66.1%	60.0%	54.3%

자료 : 국립암센터

※ 한국은 2003~2007년, 미국은 1999~2005년, 캐나다 1998~2000년, 일본은 1997~1999년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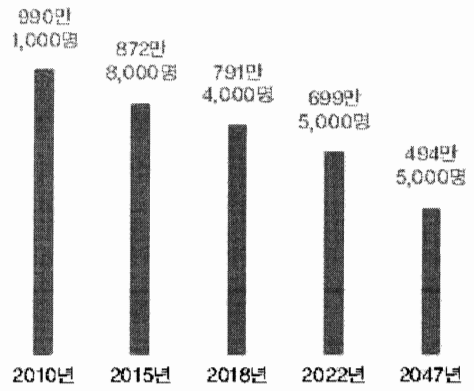
노혼(老婚) 전성시대가 온다



저출산과 학령인구의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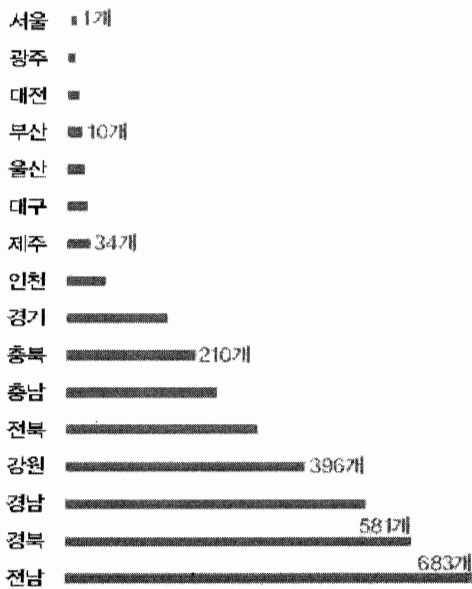
2010년 이후 학령인구 추이(여상치)



자료 : 통계청

문 닫는 학교가 늘어난다

전국 폐교 현황(1982~2009년)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충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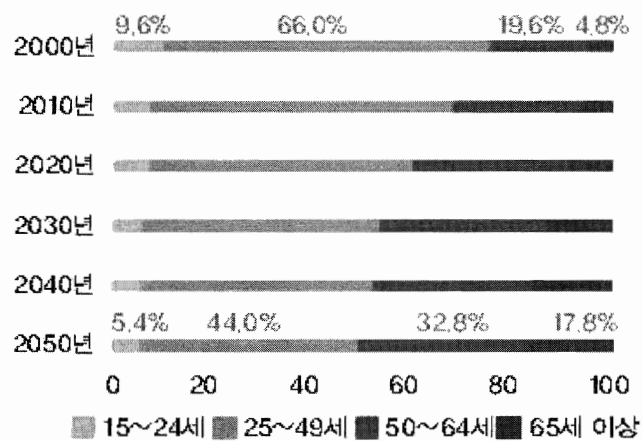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인구감소가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

총인구 감소	→	내수 위축
생산가능인구감소	→	질 좋은 노동력 부족, 저성장
베이비붐 세대 은퇴	→	소비·주택 수요의 둔화
학령인구 감소	→	각급 학교 구조조정
군입대자원 감소	→	군인력 축소
1인 가구 등 증가	→	주택수요 대형 → 중소형으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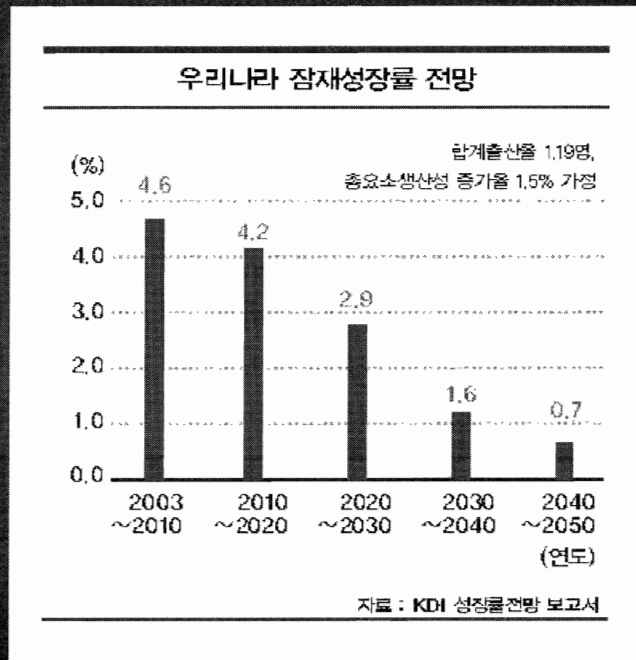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한국 노동력의 고령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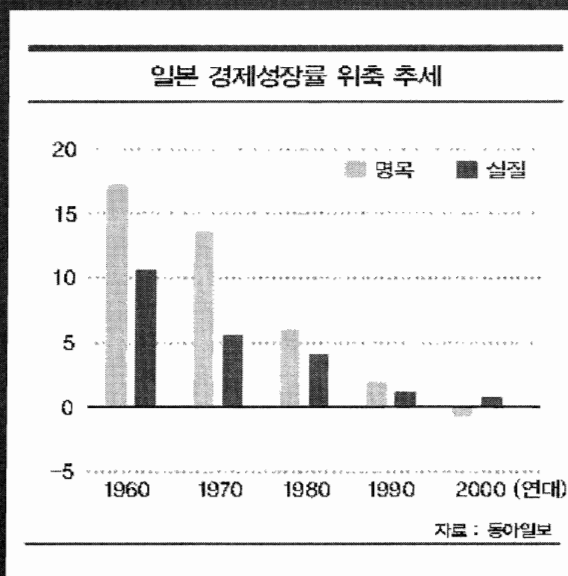
한국 노동력의 고령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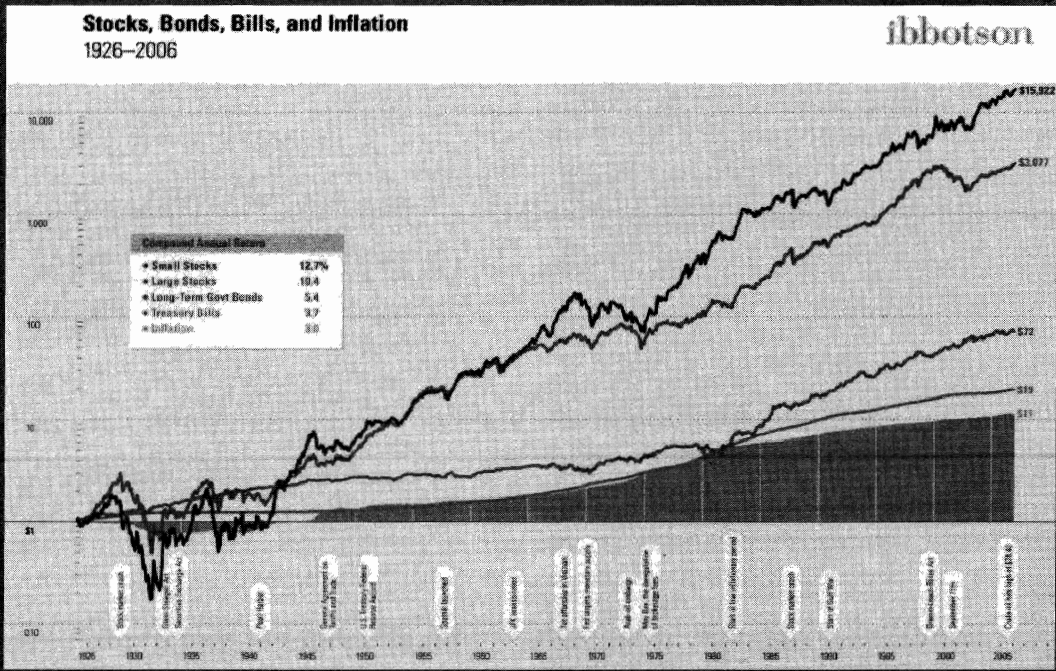
경제성장률 하락과 세수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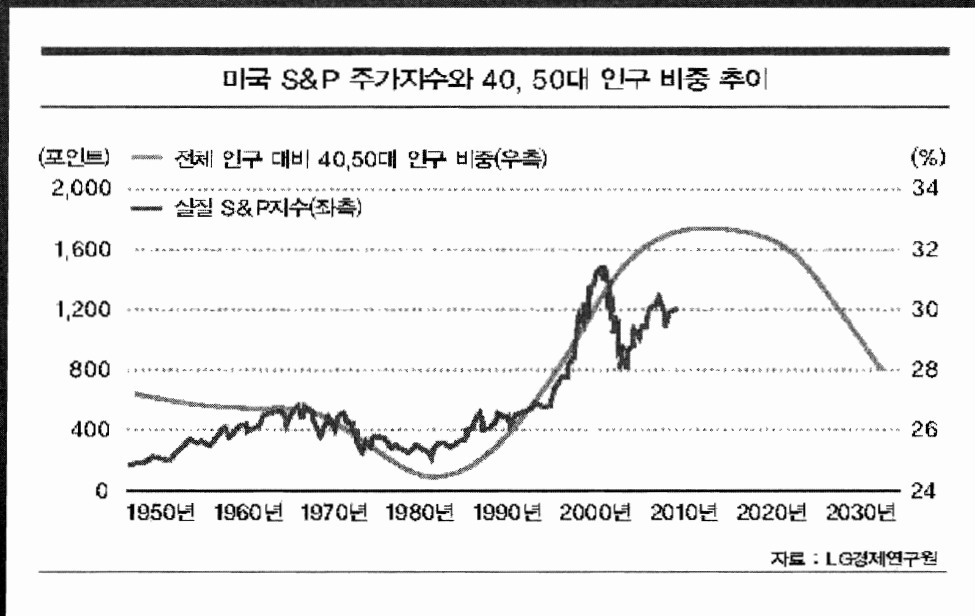
<참고> 쪼그라드는 일본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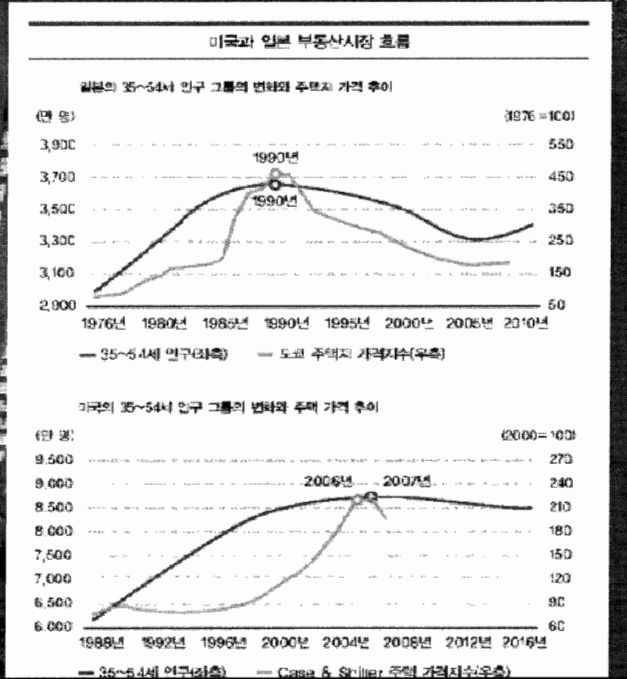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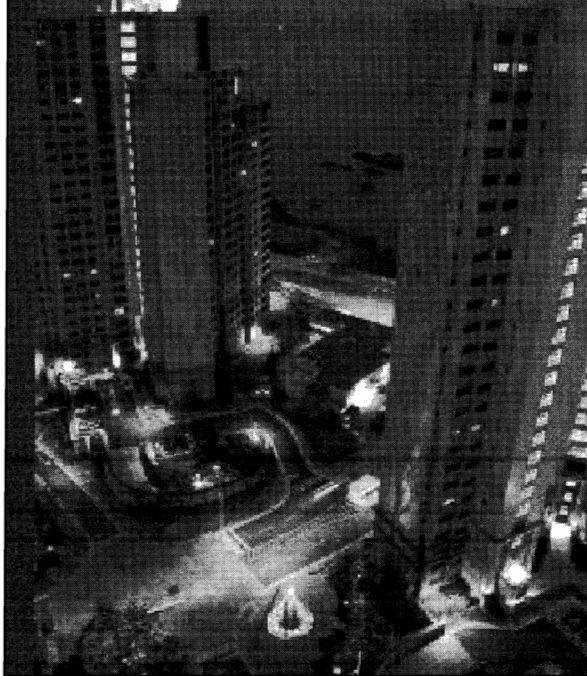
인구 고령화와 자산시장



인구구조와 미국 주식시장



인구구조와 미국·일본의 부동산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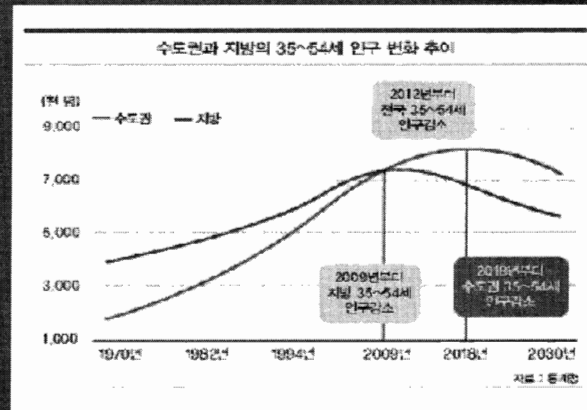


우리나라 인구구조와 부동산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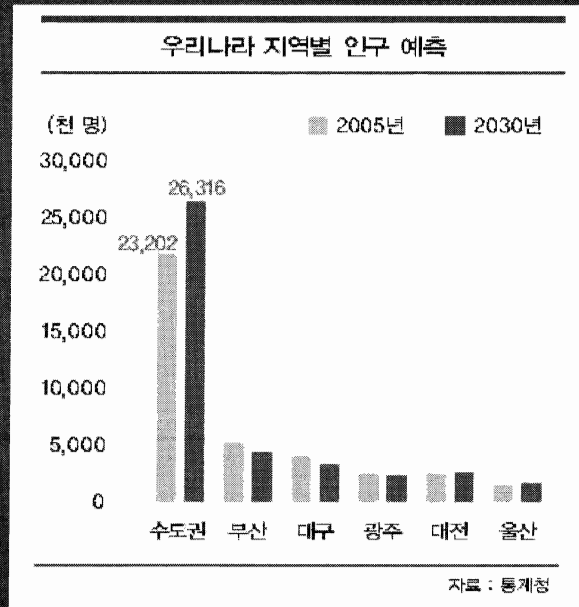
연령구간별 인구 정점 시기와 비율

연령구간	총인구 대비 비중	정점시기
35~54세	33.4%	2010년
40~59세	32.5%	2015년
15~64세	73.2%	2016년
25~49세	42.5%	200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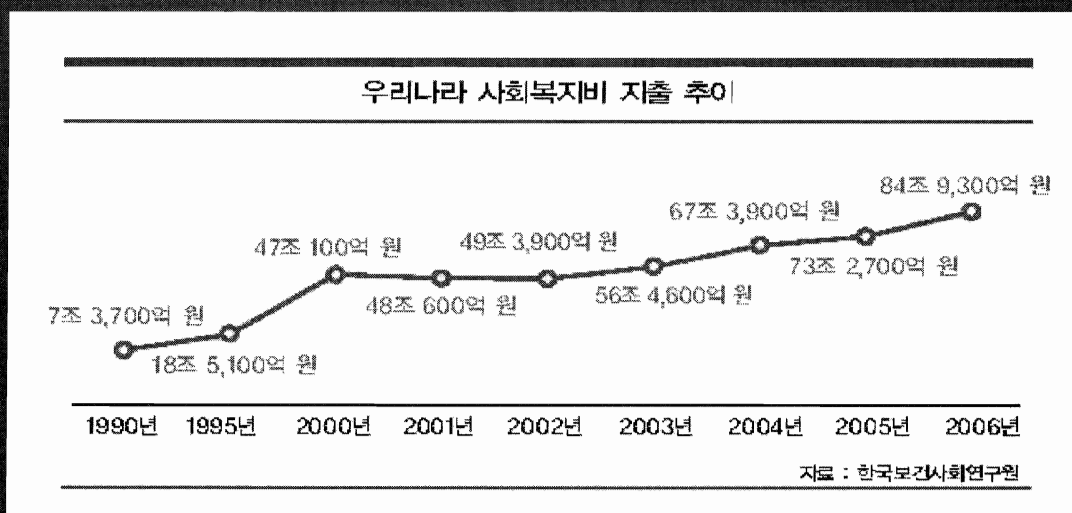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도시와 지방간 가격 양극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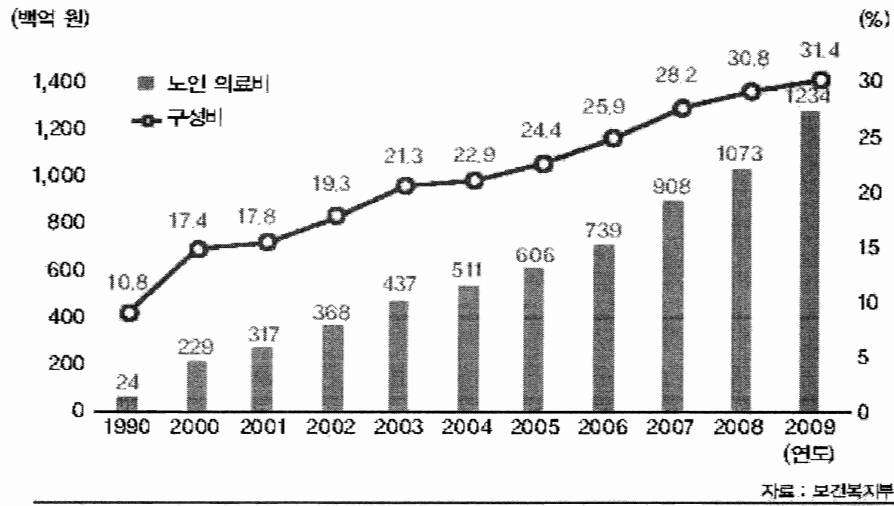


고령사회의 핵폭탄, 사회복지비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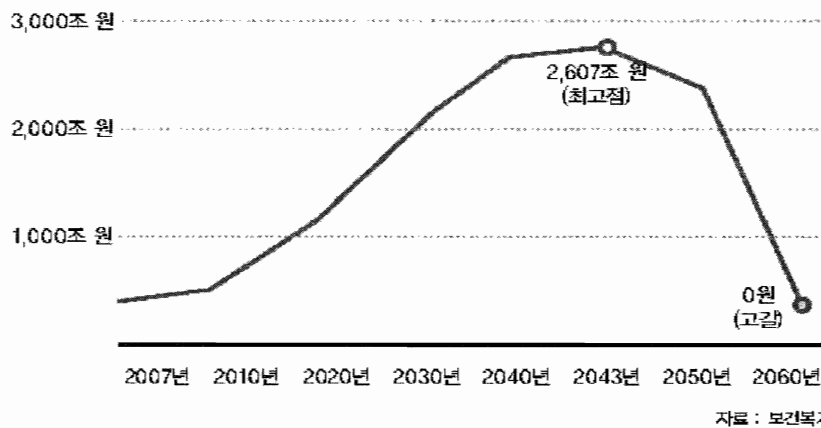
인구고령화와 건강보험의 위기

65세 이상 노인 의료비 증가 추이



불확실한 국민연금의 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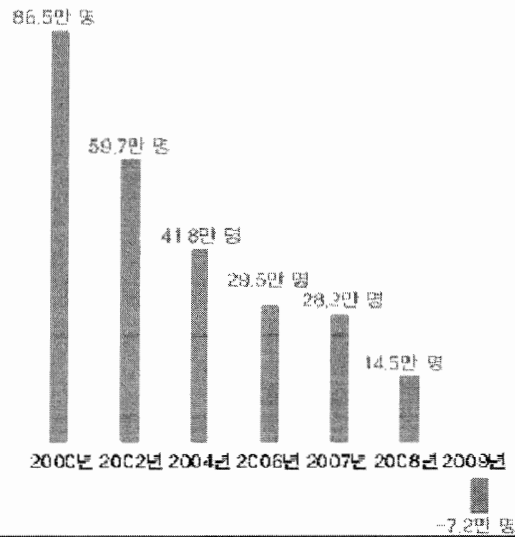
국민연금 적립기금 증감 추이(추정치)



높아지는 세대간 갈등 : 일자리 경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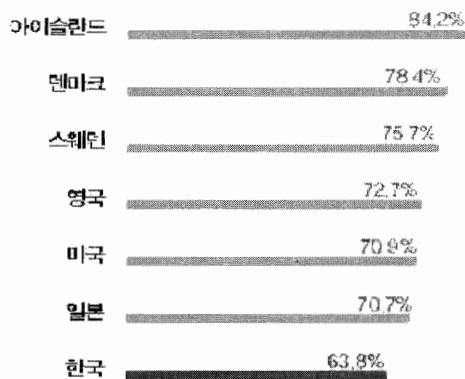


연도별 일자리 창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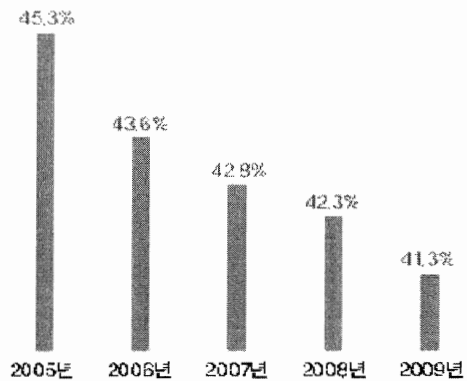
우리나라 고용률과 대학진학률

주요 국가의 고용률(2008년 기준)



자료 : 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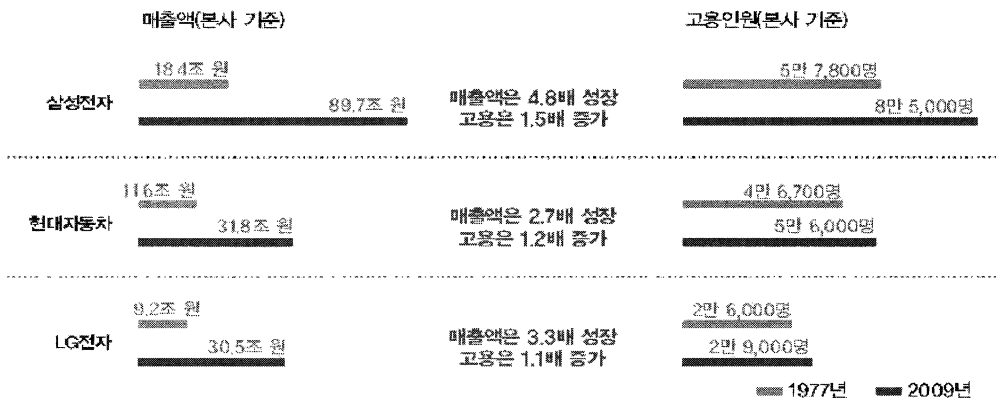
청년 고용률 하락 추이



자료 : 통계청

경제가 성장해도 일자리 안 늘어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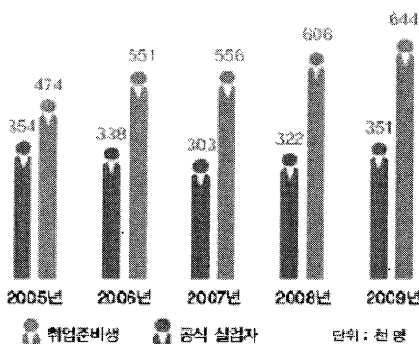
대기업의 고용 없는 성장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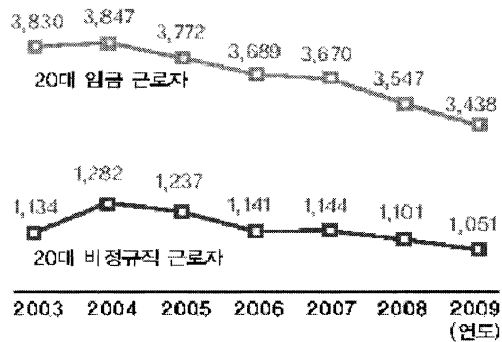
높아지는 청년 실업률

청년들의 취업난 실태

취업준비생이 공식 청년실업자보다 많고



그나마 잡은 직장도 3분의 1은 비정규직



자료 : 통계청, 월간중앙, 단위: 천 명

4. 베이비붐 세대가 풀어야 할 과제

- 인구 고령화 사회의 그림자
 - 빈부격차 확대, 중산층 축소
- 더불어 사는 세상의 실현
 - 가족의 부활, 부부의 재발견
- 적극적인 납세로 사회복지 확대를
 - 소득세 징수 강화, 부가세 세율 조정
 - 주식매매 차익 과세(capital gain ta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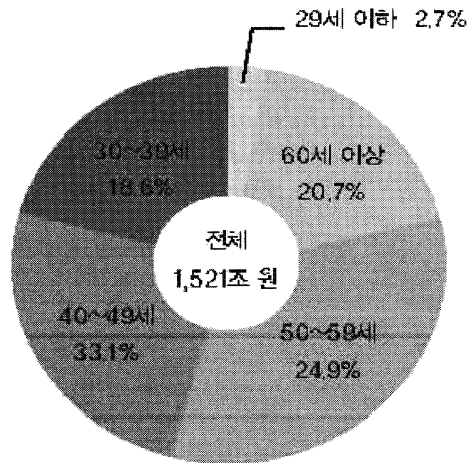
중산층 축소와 빈곤층 증가

전체 가구에서 빈곤층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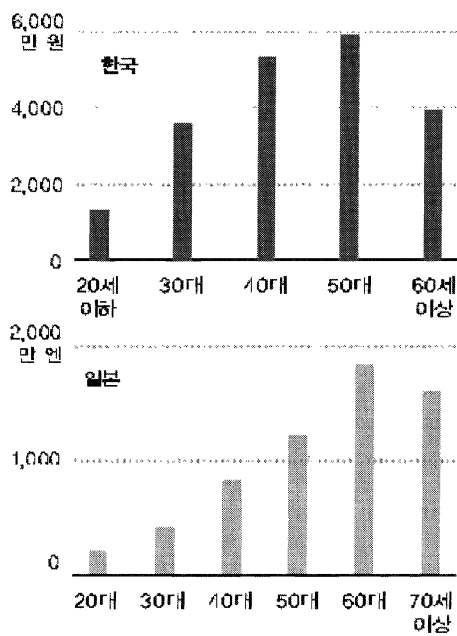
돈이 없는 한국의 고령자

한국인의 연령대별 개인금융자산 보유 비중



자료 : 한국은행, 2006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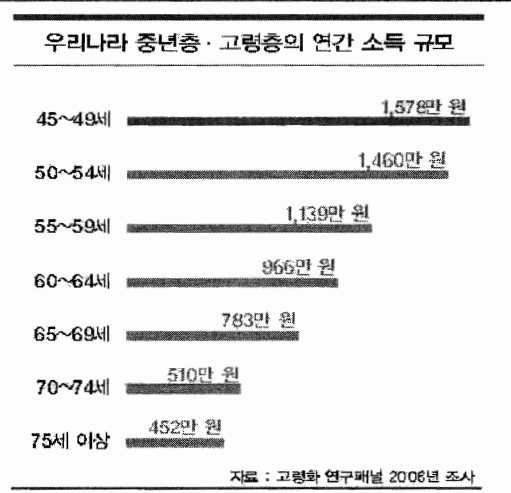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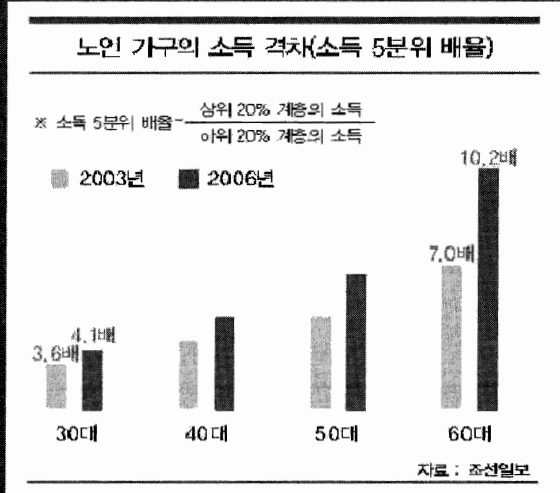
한국과 일본의 가구주 연령대별 금융자산 보유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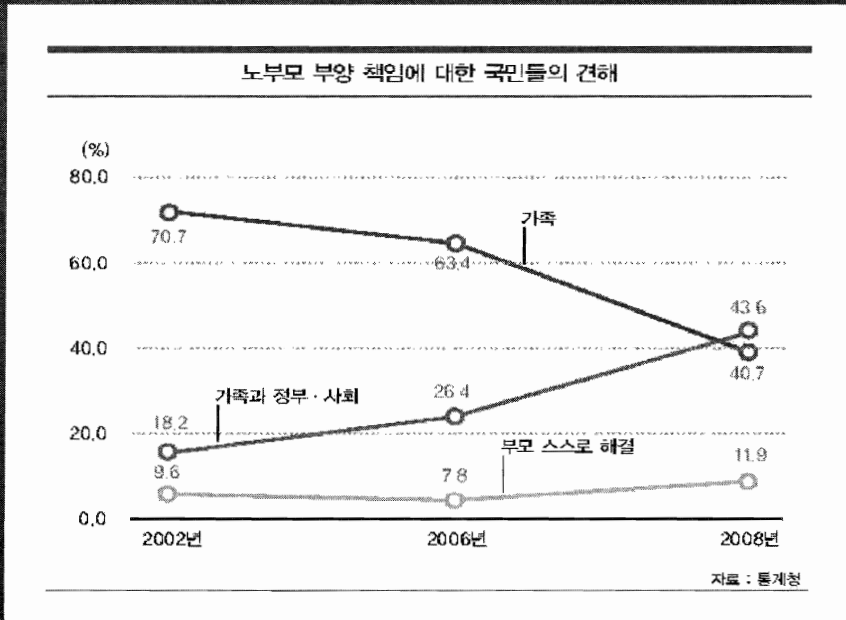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일본 금융정보중앙위원회, 2006년 기준



악화되는 노인 빈곤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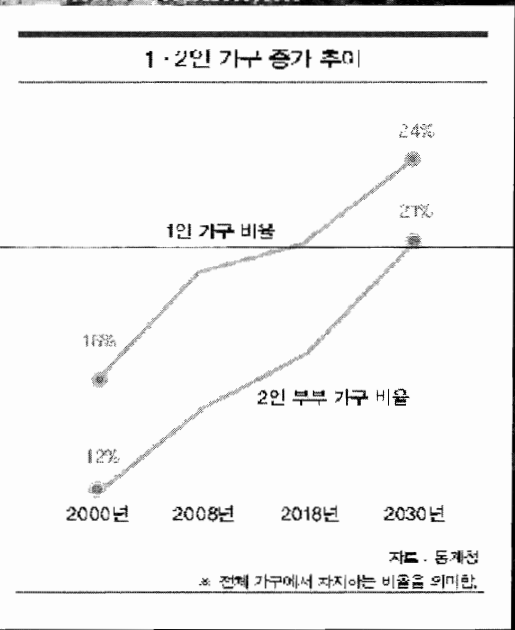


노인 부양의 1차적 책임은?





가족의 부활



전근대적인 자녀들의 사고방식

한국 청소년이 생각하는 부모의 책임

대상	책임 있음		책임 없음 (단위: %)		비고
	남	여	남	여	
대학 학자금	90.6	92.7	9.4	7.3	자녀의 결혼 비용
	83.5	87.5	16.5	12.3	
대학원 학자금	83.0	83.5	16.9	16.5	자녀의 주택 구입·전세 자금 지원
	74.0	71.7	26.0	28.3	
미취업 자녀의 용돈	74.8	76.1	25.1	23.7	결혼한 자녀의 생활비
	27.2	25.4	72.7	74.6	

자료: 여성부 전국가족조사 및 한국가족보고서

부부의 부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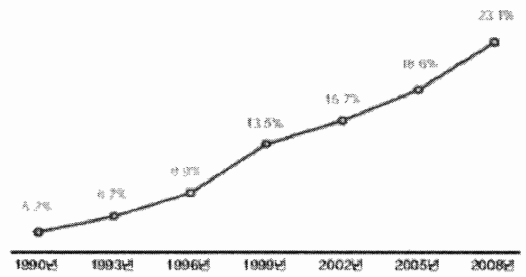


아내와 남편의 가사 시간 비교(2009년 기준)

	맞벌이 가구	비맞벌이 가구
남편	24분	19분
아내	2시간 38분	3시간 11분

자료: 통계청

20년 이상 동거부부 이혼율



베이비붐세대의 불안한 노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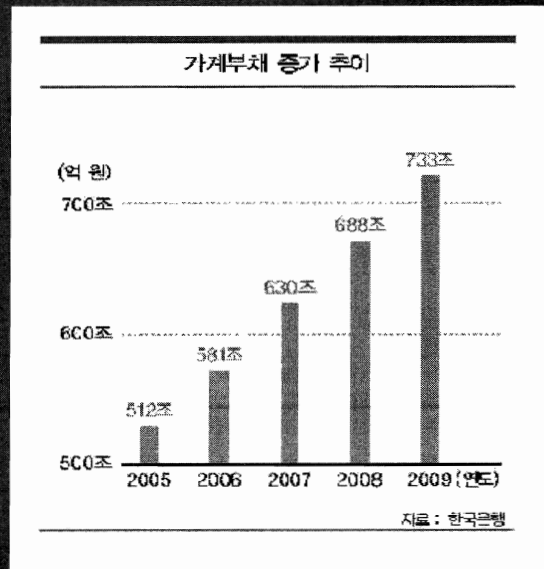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자금 소진 연한

은퇴자금	운용수익률	매월 인출금액	소진기간(월)	소진기간(년)
2억 5,300만 원	5%	150만 원	198.2	16.5
		200만 원	142.2	11.8
	7%	150만 원	248.2	20.7
		200만 원	164.6	13.7
3억 260만 원	5%	150만 원	246.1	20.5
		200만 원	174.5	14.5
	7%	150만 원	335.4	27.9
		200만 원	210.9	17.6

자료: 미래에셋투자증권연구소

※ 매월 인출금액은 최초 인출금액에서 매년 물가상승률(3%)만큼 올라가는 것으로 가정.

불안한 노후 : 증가하는 가계부채



재정 자립을 통한 당당한 노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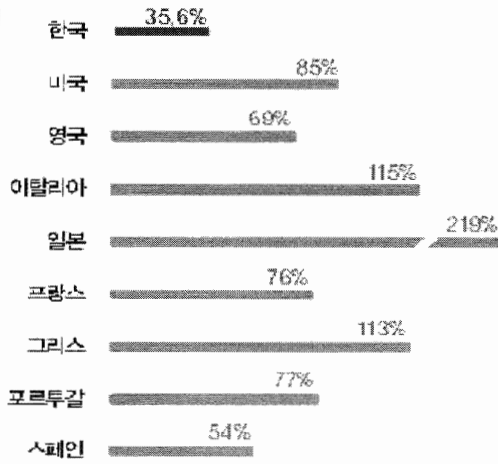
불안한 노후 : 커지는 장수 리스크



불안한 노후 : 증가하는 국가부채



주요 국가 국가부채 비율



자료 : IMF (2009년 추정치, GDP 대비 비율)

재정위기가 초래할 3가지 시나리오

1. 초월 인플레이션 시나리오

과다한 재정적자·부채 → 적자 배우기용 국채 발행 지속 → 중앙은행이 낮은 금리로 국채 매입 → 화폐 발행 증가 → 물가 급등

2. 국가부도 시나리오

과다한 재정적자·부채 → 국채 발행 지속
 · 민간 또는 해외에 고금리로 국채 매각
 · 시중금리 상승 → 국기·기계·기업 부채 부담 증가 → 국기부도 위험성 증가

3. 장기불황 시나리오

과다한 재정적자·부채 → 정부 재정 긴축
 → 각종 경기부양책 중단 → 장기불황

자료 : 조현일모

부모와 자식이 함께 살아가기



불안한 노후 : 막대한 통일비용

독일의 통일비용 지출 구성

인프라 구축(도로, 철도, 주택, 통신망 건설)					경제 지원(농업 지원, 대출이자 지원)		기타(공무원 인건비)	
사회복지(연금, 실업급여 등)		재정 지원				합계		
1,600	900	6,300	2,950	1,050	1조 2,000억 유로 (약 2,160조 원)			



적극적인 납세로 사회복지 확대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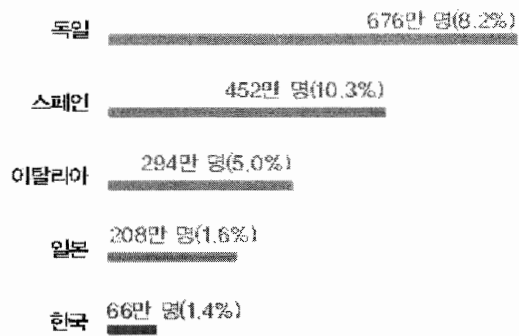
주요국가들의 조세 부담률 추이

국가명	1965년	1975년	1985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06년
일본	14.3	14.8	19.1	17.9	17.5	17.3	17.7
미국	21.4	20.3	19.1	20.9	23.0	20.8	21.3
영국	25.7	29.1	30.9	28.4	30.8	29.5	30.3
덴마크	28.8	38.2	44.8	47.7	47.8	49.8	48.1
한국		14.9	16.1	18.1	19.8	20.2	21.1
아이슬란드	24.1	29.2	27.5	28.7	34.4	37.5	38.2
스웨덴	30.8	33.2	35.5	34.4	38.1	38.3	38.6
이탈리아	16.8	13.7	22.0	27.5	30.2	28.3	29.6
노르웨이	26.1	29.5	33.8	31.3	33.7	34.6	35.2
OECD 평균	20.9	22.9	25.0	25.8	27.1	28.7	28.8

자료 : OECD, 단위 : %
* 사회복지장기여금 제외.

더불어 사는 사회의 실현

OECD 주요국의 외국인 거주자 비교
(2006년 기준)



자료 : OECD
*괄호 안은 전체 인구 대비 비율



<특강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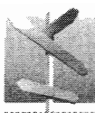


웃음과 행복



명지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부 교수 이재선

이재선 교수 _ 명지대



웃음과 행복

사람의 인생에서 행복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그런데 행복은 반드시 웃음을 동반한다는 점에서 ‘웃음’과 그 웃음을 만들어내는 ‘유머’는 인생에서 매우 커다란 위치를 차지한다. 인간에게 있어서 웃음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심리학의 시조 프로이트까지 동서고금을 통틀어 수많은 인류의 석학들이 웃음의 본질을 알아내기 위해 노력했다.

● 평균수명80세-그 비하인드 스토리

태초에 신은 천지만물을 창조하고 마지막으로 모든 생명체에 역할을 주고 그 역할에 걸 맞는 수명을 부여하기 시작했다.

첫째 날, 강아지가 찾아왔다.

신은 강아지에게 “짓어라 그리하며 내가 너에게 20년의 수명을 주겠노라”

강아지는 대답했다. “신이시여 20년 동안 짓는 것은 너무 가혹하니 10년만 깎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10년을 반납한 강아지의 수명은 10년으로 결정되었다.

둘째 날, 원숭이가 찾아왔다.

신이 말씀하시길 “너는 재주를 부려 모두를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20년의 수명을 주리라”

원숭이도 20년 재주부리기가 끔찍했던지 강아지와 같이 10년의 수명을 반납했다.

셋째 날, 소가 찾아왔다.

신은 소에게 “밭을 갈고 일하라 힘든 만큼 너에게 60년의 수명을 주겠노라”
소는 똥 씹은 얼굴로 대답했다. “60년 동안 일하라급쇼? 노 땡큐 40년
반납 플리즈...”

마지막 날, 인간이 찾아왔다. 신은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특혜
를 주었다.

“너는 그냥 인생을 즐겨라 내가 너에게 20년의 수명과 보너스로 ‘웃음’을
선물로 주마”

인간은 뿔 듯이 기뻐하며 노래했다. “♫아버지는 말하셨지..인생을
즐겨라~♫”

그러나 감사한 인간은 인생을 즐기는데 20년은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간은 신에게 사정했다.

“신이시여! 조금 더 살게 해 주십시오”

이미 수명을 다 나누어줘 버린 신은 난감했다.

“안타깝지만 내가 가진 수명은 이미 다 써버렸으니 강아지가 반납한
10년, 원숭이의 10년, 소의 40년이라도 받겠느냐?”

인간은 생각 없이 대답했다. “오 마이 갓, 베리베리 땡큐”

이상은 인간이 80년을 살게 된 믿거나 말거나 통신제공 비하인드
스토리다.

● 시기, 질투 시작되다.

이 스토리는 대충 이렇게 해석된다. 인간이 태어나서 20살까지는 별
생각 없이 먹고 즐기며 본래 주어진 인간의 수명을 살고 이후 40년은
죽어라 일해야 하는 숙명적인 소의 삶을 살아간다. 60살 이후 10년은

손주의 재롱을 보며 좋아하고, 손주 앞에서 재롱부리는 원숭이의 삶이며, 70살 이후 10년은 집 지키면서 온 가족들에게 참견하고 짓어(?)대는 강아지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아닐까? ㅎㅎ

우리네 부모들의 인생을 빗대어 보면 얼추 맞는 이야기 같기도 하다. 그러나 최근 우리의 상황에는 좀 걸맞지 않는 이야기인 듯하다. 웃음을 잃어버린 각박하고 복잡한 세상은 본래 인간에게 주어진 20년의 한가로움과 즐거움마저 시기, 질투하는 것 같다.

실제로 우리네 인생을 들여다보자.

80세 어르신의 인생을 회고하여 보았더니 잠자는데 26년, 일하는데 21년, 식사하는데 6년, 기다리는데 6년, 기다리는데 6년, 웃는데 시간을 보낸 것은 겨우 22시간 이었다고 한다.

아이들이 맘껏 뛰어놀 수 없고, 청년들은 실업의 고통을 감수해야 하며, 성인들은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 남아야하고, 노년의 안락함도 보장받지 못하는 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다.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환갑잔치를 하지 않는다. 60 청춘에 잔치를 벌이기에는 왠지 좀 쑥스럽다. 60은 한창 일할 나이이지 인생의 종파티를 벌일 나이는 아닌 것이다. 그런 세상을 우린 살고 있다. 우리 인생 어디에도 한가로움과 즐거움은 없는 듯하다.

믿거나 말거나 통신의 즐거운 20년은 어디에서 보상받을 것인가? 그러나 이쯤에서 잠깐! 우리가 잊고 지내는 것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바로 신이 인간에게만 주신 보너스 선물인 웃음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선물인지조차도 모른 채 너무나 오랫동안 구석에 처박아 두었다. 이제 처박아 두었던 선물의 포장을 뜯자. 그 안에는 마법같이 신비하고 보석같이 빛나는 신의 선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 선물은 여러분의 잃어버린 20년을 보상하고도 남을만한 위력을 가지고 있다.

● 잃어버린 20년 되찾기 프로젝트

김대중 전 대통령은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뛰어난 유머 감각을 지닌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언젠가 그는 “사형 선고를 받았던 지난 1980년에 아내가 김대중을 살려 달라고 기도하는게 아니라 하느님 뜻에 따르겠다고 기도하는 것을 보고 가장 섭섭했다.”고 토로해 폭소를 자아냈다. 생과 사를 넘나드는 고난과 역경에도 유머를 잃지 않는 지도자는 모든 사람들의 존경의 대상이 됐고 그는 결국 대통령이 되었다. 잘 웃기는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다. 또한, 유머의 황제 찰리 채플린은 80세에도 아기를 낳았고, 옛날 우리 임금들은 건강, 장수를 위해 웃음 내시를 두었다고 한다. 탁월한 유머 감각은 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집단과 조직에 생기를 불어넣는다. 웃음이야말로 웰빙과 행복의 지름길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장애요소가 있다.

많은 사람들은 유머와 웃음을 이미 잃어버렸고 어떻게 유머를 사용하고, 어떻게 유머감각을 높이며 웃어야 하는지 좋은지는 알지만 행동으로 옮기기 어려운 이른바 토마토 이펙트(Tomato Effect)가 유머와 웃음에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제안한다. 잃어버린 20년을 되찾고 싶은가? 유머와 웃음으로 유쾌한 삶의 여유를 회복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유머형 인간 프로젝트에 동참하라. 웃고 웃기자 당신도 행복을 스스로 자가 발전하는 유머형인간이 될 수 있다.

● 유머형 인간 프로젝트란?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하다는 말이 있다. 행복을 위해 신이 인간에게만 주신 마법의 선물이 있다. 그것이 바로 웃음이다. 21세기 최고의 경쟁력이자 인간의 오감에 이은 여섯 번째 감각이라는 “유머감각”은 우리가 잊고 지냈던 선물 “웃음”을 되찾는 중요한 키워드이다.

Dr. Goodman(1983)은 사람들이 유머감각을 개발하고 응용할 수 있도록 유머 프로젝트를 개발하였다. 자신의 신문인 The laughing Matters는 사람들을 위해 유머를 치료적 상황에 구체적으로 적용한 최초의 시도 중 하나이다. Goodman은 유머감각을 개발하려고 할 때 네 가지 요소 즉, (1) 일상유머의 이해 (2) 자신을 웃게 하고 (3)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유머, 그리고 (4) 유머기술의 연습을 고려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일상 유머는 별다른 의도 없는 유머러스한 신문 헤드라인과 같은 평범한 장소나 길을 걷는 동안에도 발견할 수 있다. Goodman에 의하면 사람들은 찾으려고 하면 어디에서나 유머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의 실패나 결점에 대해 웃는 것을 배울 수 있다면 자신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고 진지하게 되는 것보다 상황을 즐겁게 다루기를 학습할 수 있다.

긍정적인 유머는 누군가와 함께 웃지만 부정적인 유머는 누군가를 향해 웃음짓는 것을 의미한다. 부정적인 유머의 실례는 비꼼이나 비웃음이다. Goodman은 유머기술을 연습할 것을 권고한다. 유머기술을 연습하는 방법은 무대에서 혼자서 하는 코미디를 보거나 과장이나 줄임을 활용하여 농담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 Goodman의 유머형 인간 되기

1. 웃음의 효력을 인식하라
2. 라디오, TV, 신문, 비디오, 서적 등에서 유머를 찾아라
3. 웃음노트를 준비하라
4. 지금보다 좀 더 장난끼 있게 살아라
5. 지갑이나 수첩 주머니에 유머를 넣고 다니며 다른 사람들과 나누라.

6. 잘 웃는 사람과 어울려라.
7. 당신 자신에 대해서 웃어라.

● 유머(Humor)

① 네이버 백과사전

익살·해학·기분·기질로 번역되며 프랑스어로는 위무르(humour), 독일어로는 후모르(Humor)라고 한다. 본래는 고대 생리학에서 인간의 체내를 흐른다고 하는 혈액·점액·담즙·흑담즙 등 4종류의 체액을 의미하였다. 당시에는 이들 체액의 배합 정도가 사람의 체질이나 성질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였고 나아가 이 말은 기질·기분·변덕스러움 등을 뜻하게 되었다. 다시 바뀌어 인간의 행동·언어·문장 등이 갖는 웃음의 뜻, 그리고 그러한 웃음을 인식하거나 표현하는 능력의 뜻까지 붙게 되었다.

비슷한 말에 위트(기지)가 있어 똑같이 웃음을 인식하고 표현한다고 하지만 위트가 순수하게 지적(知的) 능력인 데 반해 유머는 그 웃음의 대상에의 동정을 수반하는 정적(情的)인 작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그만큼 인간이 지닌 숙명적인 슬픔을 느끼고 느끼게 하는 데 커다란 특색이 있다. 높은 곳에서 초연한 태도로 내려다보며 인간의 어리석음을 웃어제끼는 웃음이 아니라 인간의 어리석음을 가가대소(呵呵大笑)하면서 그것이 자신을 포함한 인간들의 슬픈 천성이라는 데 연민과 사랑을 던지는 약간 복잡한 웃음이다. 그런 뜻에서 위트처럼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하나 하나의 현상에 대한 반응으로서 나타나는 데 그치지 않고 보다 포괄적인 인생관조의 한 태도에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② 야후 백과사전

마음을 즐겁게 하거나 웃음을 일으키는 의사소통. 익살·농담·해학이라고도 한다. 본래, 고대 그리스 이후 서유럽의 고전 의학 용어로서 체액(體液)을 뜻하는 후모르(humor)라는 라틴어에서 유래되었다. 예로부터 사람 몸 속에는 혈액·점액·황담즙(黃膽汁)·흑담즙(黑膽汁) 등 4가지 체액이 흐르고 있으며, 이들이 혼합된 비율에 따라 그 사람의 성질이나 체질이 정해진다고 생각해 왔다. 근대에 들어와서 점차 기질·기분, 특히 익살이나 농담성이 있는 기질의 의미로 쓰이면서 현재의 의미가 생겼다.

현대 서유럽 여러 언어 가운데 프랑스어나 독일어에서 이 말이 영어를 거친 형태로 사용되고 있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유머는 근대 영국의 특질을 잘 나타낸 말이다. 유머는 그 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해 동정이나 연민을 품은 정적(情的)·관용적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 풍자의 공격성과는 대조적이며, 또한 위트(wit)나 에스프리(esprit)처럼 이지적 성격의 능력인 기지와도 다르다. 위트나 에스프리와 마찬가지로 유머도 모순과 부조리에 가득 찬 현실을 날카로운 인간 관찰의 눈을 통해 들여다 본다. 그러나 그 사실을 겉으로 나타내지 않고,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어리석은 행동에 자비심을 가지고 표현함으로써 유머의 특징인 독특한 해학이 생겨났다.

③ 치료적 유머(Therapeutic Humor)

‘유머(Humor)’에 대한 통일된 정의는 따로 없지만 일반적으로 ‘자극’(예 코미디영화), ‘사고 과정’(예 즐거운 부조화를 인지하거나 창조), ‘반응’(예 웃음이나 유쾌한 기분) 등을 일컫기도 한다.

미국의 ‘응용 및 치료적 유머협회(the Association for Applied and Therapeutic Humor)’에서는 ‘치료적 유머(therapeutic humor)’의 정의에 대해 ‘일상 생활사에서의 부조화나 모순을 즐겁게 발견하고 표현하거나 느끼도록 고무함으로써 건강과 안녕을 향상시키는 모든 개입(any intervention that promotes health and wellness by stimulating a playful discovery, expression or appreciation of the absurdity or incongruity of life’s situations)’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개입은 ‘신체적, 감정적, 인지적, 영적으로든지 치유와 대처 능력을 증진 시킴으로써 건강을 향상시키거나 질병에 대한 보완적인 치료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this intervention may enhance health or be used as a complementary treatment of illness to facilitate healing or coping, whether physical, emotional, cognitive, or spiritual)’고 기술하고 있다.

④ 유머와 웃음치료

유머와 웃음 프로그램은 기관이나 경험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양한 형식으로 시행될 수 있다.

● 유머치료(Humor Therapy)

그룹을 대상으로 실제 이야기를 소재로 따뜻하고 해학적으로 씩여진 소설을 함께 낭독하거나 웃음을 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시청하거나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세션을 통해 삶의 보다 밝은 면을 조명하고 유머를 찾도록 상기시킨다.

● 웃음치료(Laughter Theraphy)

Dolan은 웃음을 혈액순환과 산소공급을 증가시켜주는 ‘유산소 유머(aerobic humor)’, ‘내부 주요 장기의 내적인 조깅(internal jogging for

all the major organs)'으로 기술하였다. 웃음을 유발할 수 있는 소재들을 이용하고 사람들 간의 관계와 지지의 중요성을 상기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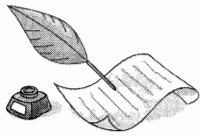
● 래프터 클럽(Laughter clubs)

인도의 의사인 카다리아(Madan Kataria)에 의해서 1995년 한 공원에서 5명과 함께 시작되었으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5000개의 래프터클럽이 있다고 한다. 처음에는 한 사람씩 농담을 하면서 웃는 것으로 시작하였으나 점차 성적인 내용을 다루거나 부정적인 유머로 변하면서 한계를 느끼게 되었고 우스운 말이나 생각 없이 웃는 것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요가 동작처럼 웃음 운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유머의 신체적인 면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나와 주위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내적인 웃음을 생활과 삶의 하나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강조하며 만들어진 신체적인 웃음 뒤에 감정적인 편안함이 뒤따른다고 소개하고 있다. 특별한 금기는 없으나 모든 신체적 운동이 그렇듯이 한번에 20~30분 이내로 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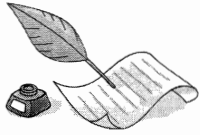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spanning the width of the p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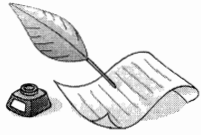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spaced evenly down the page.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spanning the width of the page.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spanning the width of the page.